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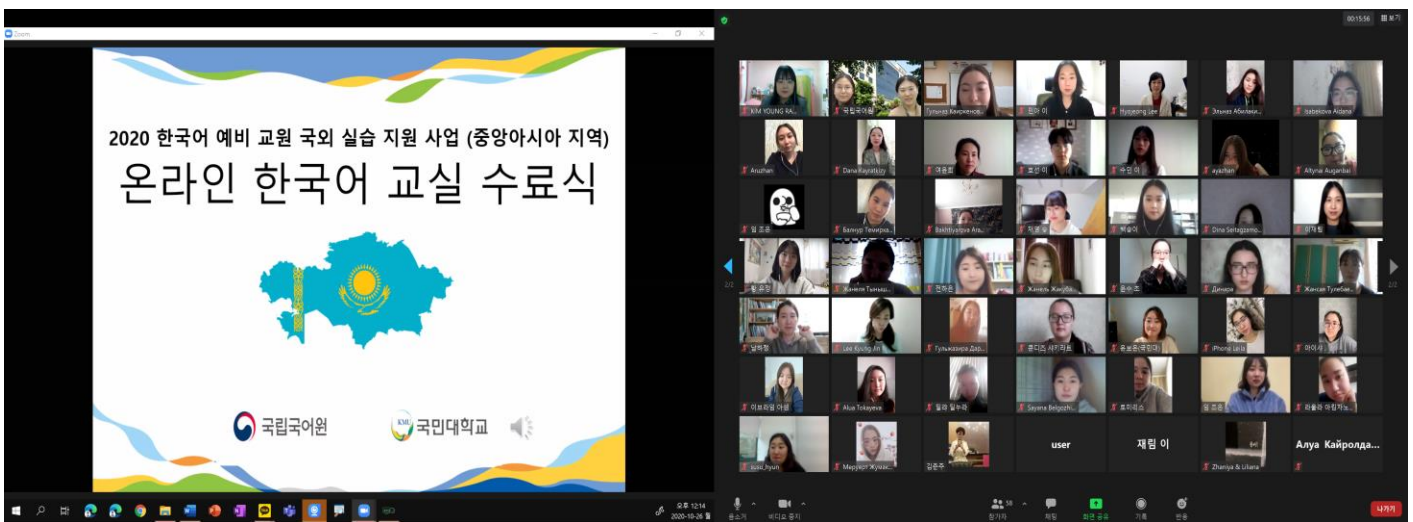
2020 DECEMBER

KazNKS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20.12.10



국립국어원-국민대 온라인 한국어교실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와 국민대 국외실습지원사업단(단장 이동은 교수)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0 온라인 한국어교실”이 2020년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어 경력교원 5명과 예비교원 19명이 카자흐스탄 세계언어대 학생 90명에게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강의하였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관련기사 pp.2-4)

국립국어원-국민대 2020 온라인한국어교실, 2020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김홍수 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 특강

나자르바예프대
(관련기사 pp.5-6)

한국학토크콘서트 “한국의 비즈니스예절”, “해외유학, 왜 한국인가”, “한국 전통요리 체험”, 한국학세미나 “새마을운동의 사례 외

카자흐 국립대
(관련기사 pp.7-8)

해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어교사연수, 최재형기념사업회 장학금,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국제학술회의 외

* 이 뉴스레터는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canks.ais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Tole bi 84,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canks.asia>
E-mail: cks@ablai.khan.kz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국립국어원-국민대 온라인 한국어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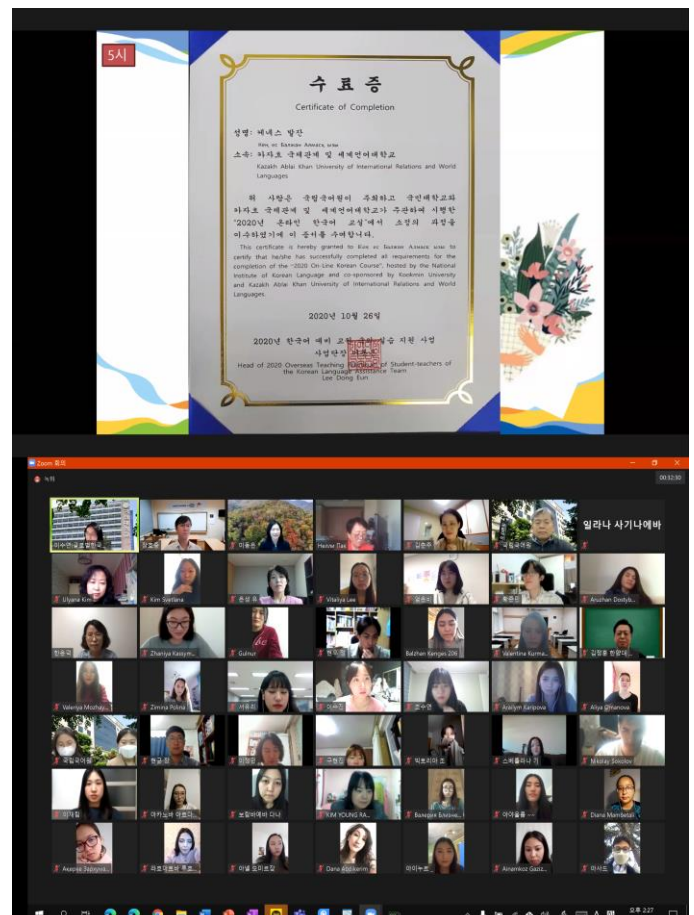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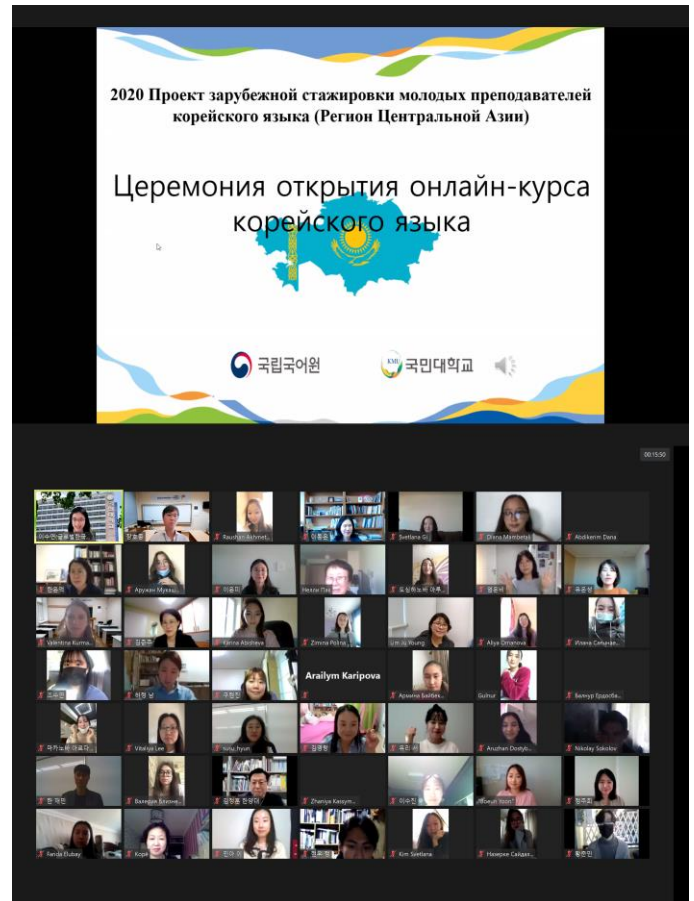
2020년 10월 5일(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에서 “2020 한국어예비교원 국외실습지원사업(중앙아시아 지역) 온라인한국어교실” 개강식이 개최되었다.

개강식에는 이번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이동은 단장(국민대)을 비롯하여 김진엽 한국어진흥과 과장, 이윤미 연구사(이상 국립국어원), 이효정 교수, 이수연 교수, 윤보은 교수(이상 국민대), 조남호 교수(명지대), 김정훈 교수(한양대), 김지혜 교수(고려대), 박 벨리 교수, 한 벨리 교수(이상 카자흐 세계언어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개강식에 참석한 학생들을 격려했었다. 또한 온라인한국어교실 담당 경력교원 5명, 예비교원 19명이 90명의 카자흐 세계언어대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한국에서는 송채영(상지대), 서유리(경희대) 예비교원이 대표로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습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밝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이사베코바 아이다나, 마카노바 아르다크(이상 카자흐 세계언어대)가 학생들을 대표하여 온라인한국어교실을 준비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와 국민대 국외실습지원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10월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국민대 국외실습지원사업단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아시아에서 고교생, 대학생 및 교원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예비교원 국외실습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9년 여름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20여 명의 예비교원을 파견하여 한 달간 대규모로 단기한국어교실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으나, 온라인으로 현장과 연결하여 한국어교실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유튜브를 통하여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게 된다.

2017년부터 계속된 한국어예비교원 국외실습사업은 국내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실습현장 다양화를 위한 국외실습 기회를 마련하고 국외 재외동포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일본, 러시아 등에서 개최해 왔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3년간 국립국어원, 국민대, 카자흐 세계언어대를 비롯한 국내외 여러 기관의 철저한 기획과 준비로 현지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예비교원들은 국외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실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올해는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나, 예비교원들은 물론이고 현지의 한국어 교원과 학생들이 미래의 새로운 교육 방식인 원격 강의와 실시간 소통 방식을 한국어 교육에 앞당겨 적용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2020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2020년 2월 25일(화)부터 26일(수)까지 이틀에 걸쳐 2020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를 개최하였다. 세계언어대 본관에서 개최된 이번 경시대회는 카자흐스탄 교육부가 주최하는 외국어올림피아드(National Student Olympiad in Foreign Languages)의 일환으로 열렸다. 본 대회에는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 9개 언어에서 어문학, 통번역, 복수외국어 3개 영역 25개 부문에 걸쳐 30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였다.

전체 개회식은 25일 제 1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식을 마치고 언어별로 대회가 진행되어 어문학부문의 테스트와 작문이 실시되었고, 통번역부문은 번역 시험이 실시되었다. 26일 어문학부문은 박 넬리(세계언어대 중핵대학사업단장), 황규태(주알마티 총영사관 영사), 김수진(알마티 한국교육원 부원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류: 관광산업’을 주제로 발표한 참가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심사하였다. 통번역부문은 한 넬리(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소장), 채 예브게니야(Unidom Kazakhstan 대표), 전 엘레나(총영사관 통역), 이재욱(BLJ Group), 무하토프 다울레트(GDA Group)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참가자들의 통역을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어문학부문의 1등은 코블란디나 굴자우하르(세계언어대 3학년), 통번역부문의 1등은 자나바이 아크제르(세계언어대 4학년)이 차지하였다. 1위 2명 노트북 컴퓨터, 2위 2명 스마트폰, 3위 2명 무선이어폰, 장려상 4명 스마트밴드의 상품이 주어졌으며, 주알마티 총영사관, 알마티 한국교육원, 카자흐스탄 한인회, Unidom Kazakhstan,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총동문회 등에서 상품을 후원하였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김흥수 주알마티 총영사 특강

2020 년 11 월 14 일(목) 노보텔 호텔 회의실에서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흥수 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의 특강이 개최되었다.

이날 김흥수 총영사는 “동해 그리고 독도”를 주제로 하여, 카자흐스탄 학생들에게 생소한 한일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일 양국의 주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국내외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독도와 동해 문제에 대해 한국이 주장하는 근거들을 짚어 볼 수 있었다. 또한 외교적으로 복잡한 정세를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비교적 쉽게 설명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특강을 통해 동해의 명칭 논쟁과 독도의 영유권 분쟁의 차이와 역사적 배경, 현재 진행 상황 등을 이해한 학생들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 예정된 시간보다 길게 진행될 정도로 행사의 열기가 뜨거웠다. 또한 지난 3월 대학 강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된 이후 등교하지 못하여 서로 만나지 못했던 학생들은 모처럼 대면 행사를 통해 반가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독도와 동해를 주제로 미디어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일련의 행사를 통하여 카자흐스탄 현지에 독도와 동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소개하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에 주력해 온 주알마티 총영사관은 올해는 정책공공외교사업의 일환으로 <독도동해 특강>을 개최하였다.

한편, 본 행사는 마스크 착용, 참석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방역대책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나자르바예프대

한국학토크콘서트

2020년 2월 3일(월) 나자르바예프 대학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20년 봄학기 첫 번째 K-Talk 이 문을 열었다. 이번 K-Talk 강연의 특별강사로 초청된 KINDAS Group 김익준 대표이사는 “한국의 비즈니스 예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중들과 함께 실질적이고 유용한 이야기들을 풀어 나갔다. 한국 사람들과의 일자리 만남에서 알아야 할 예절과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이어 인사하기, 명함 주고받기 등 실제 현장에서 외국인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주었다. 강연 후에는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여 학생들이 직접 실습해 보고, 나이, 직책,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의 비즈니스 예절을 직접 체험해보는 실습 시간도 가지는 등 딱딱한 예절교육이 아닌 생동감있는 강의로 진행되었다. 강연과 실습 후에는 한국 취업이나 카자흐스탄과 한국, 양국 간 교류 및 사업 등에 관한 청중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공공외교아카데미 국제워크숍

나자르바예프대 한국학센터의 고태운 교수(정치학)는 2019년 11월 28일 강원대학교(춘천)에서 열린 공공외교아카데미 국제워크숍에 다녀왔다. <The Future of Public Diplomacy in the Midst of Power Competition>이라는 주제로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공공외교아카데미(단장: 정구연)에서 주최한 워크숍에서 고태운 교수(정치학)는 "Can Promotion of Overseas Korean Studies programs Increase South Korea's Soft Power"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 2 회 한국학주간

나자르바예프대 한국학센터는 2019년 11월 15-16일 이틀 동안 알마티의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소장 한넬리)가 주최한 <제 2 회 한국학주간> 행사에 다녀왔다. 각각 5회와 10회를 맞는 한국학올림피아드와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는 지난 2018년부터 ‘한국학주간’이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고려대 한국어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가 함께 했다. 한국학주간에 처음으로 초청받은 나자르바예프대는 한국학올림피아드와 대학(원)생 학술대회에 각 1명씩 참가하였다. 학술대회에는 라우라 마이타노바(정치학 3학년)가 참가하여 “남북관계와 북미 간 핵 협상의 삼각관계”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해당 논문은 지난 봄학기 고태운 교수(정치학)의 <한반도의 국제정치학> 과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소논문을 발전시킨 것으로 한국-미국-북한의 삼각관계를 시기별로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한국학올림피아드에는 카밀라 켄제바예바(경제학 3학년)가 참여하여 작년부터 개설된 한국어 과목을 통해 쌓은 한국어 쓰기 및 말하기 실력을 겨루었다. 나자르바예프대 한국학센터에서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한국학 공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참가할 예정이다.



나자르바예프대

한국학세미나

2019 년 11 월 22 일(금) 나자르바예프대 한국학센터에서는 영남대학교 유호웅 박사를 초청하여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초청된 유호웅 박사는 새마을운동이 단순한 경제성장정책일 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경제정책에 활용한 사례로써 공동체 개발이라는 측면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본교 교수 및 학생들이 참석하여 카자흐스탄 내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문 발표 후 유호웅 박사는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카자흐스탄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부분과 한국의 새마을운동 사례를 통해 배울 점들에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학토크콘서트

2019 년 11 월 22 일(금) 가을학기 마지막 K-Talk@NU 행사가 열렸다. 영남대학교 유호웅 박사를 초청 강사로 “Why Study in Korea?”라는 주제 하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 유학에 관심있는 수십 명의 본교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유호웅 박사는 코이카(KOICA), 정부초청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등 한국 주요 장학 프로그램의 지원 요건 및 혜택에 관한 유용한 정보와 함께, 한국 유학 생활의 모습과 장점을 재미있게 전달하여 청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도 많은 질문이 이어져 나자르바예프 대학교 학생들의 한국 유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전통요리 체험

2019 년 10 월의 K-Talks@NU 행사는 평소와 다르게 한국 문화원 조리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되었다. 이날의 초빙 강사인 김명희 요리연구가는 한국의 전통음식에 대한 강의로 잔치 음식 중 하나인 잡채 조리법을 소개하였다. 간명하면서도 재치 있는 강의와 요리시범이 있은 후, 나자르바예프 대학 학생들은 직접 잡채를 만드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요리 실습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한국 문화원에서 제공하는 활동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나전칠기’ 공예품 전시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전칠기’는 자개를 활용하고 옷칠을 하여 가구 등에 장식을 하는 아름답고 영롱한 전통 공예 기법이다.



한국의 민속놀이

2019 년 9 월 20 일(금) 나자르바예프대 한국학센터는 추석을 맞이하여 “한국 민속놀이”라는 주제로 한국학 토크 콘서트 K-talk 행사를 진행하였다. 강연을 맡은 조연주 교수(언어어문학부)는 한국의 전통놀이 및 언어와 문화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들을 전달하였다. 강연에 이어 한복 체험과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카자흐 국립대

해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알마티 한국교육원이 주최한 '2019 년 해외한국사능력검정 특별시험'을 2019 년 6 월 2 일(일) 카자흐 국립대 동방학부 강당에서 시행했다. 이 시험은 재외동포와 세계인들이 한국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07 년 제 1 회 시험을 실시한 이후 두 번째이며 특히, 2019 년이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 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후손들뿐만 아니라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어의 날, 학과 선후배 만남

2019 년 9 월 12 일, 매년 9 월이 되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과 '언어의날' 행사와 학과 선후배 간의 친선모임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서 각 학년별 장기자랑도 이어졌는데 카자흐스탄 전통악기로 학생들이 직접 연주한 돔브라, 코브스 공연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K-POP 노래공연과 한국음악에 맞춘 댄스공연 등이 이어지며 학생들의 끼를 발산하는 장이 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신학기 초에 신입생과 재학생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한국어교사연수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학교가 주관하고 국립국어원과 국민대학교 한국어 예비교원 실습지원 사업단이 주최한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한국어교사 연수'가 2019 년 10 월 18 일 동방학부 건물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 쓰기 영역과 관련하여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에 맞는 쓰기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 시 토픽 관련 수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키우고 최신 토픽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 1 회 한문화컵 문예콩쿨대회

2019 년 11 월 2 일 디아스포라유산이 주최하고 한문화예술원이 주관한 제 1 회 한문화 문예콩쿨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본교 아이보타 학생이 수필낭송 부분에 참가하여 3 등에 입상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한국어말하기 실력향상을 넘어 한국수필낭송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본교 4 학년 재학 중인 아이보타 학생이 3 등에 입상을 함으로써 한국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이 고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카자흐 국립대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국제학술회의

2019년 12월 7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서의 한국 문학 연구(고려인 문학 포함)”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국내외 한국문학 관련 연구자들이 카자흐스탄, 러시아, 대한민국 등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해 유익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2017년 시작된 카자흐국립대학교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은 국내외에서 한국학 발전을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26년여간 펼쳐온 카자흐국립대학교 한국학과와 저력을 엿볼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특히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관련하여 꾸준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재형기념사업회 장학금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이사장 문영숙)의 후원으로 치러진 장학금전달식이 2019년 11월 4일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 수여식을 통해 총 7명의 한국학과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 전달식은 학생들의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제고시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제 1 회 카자흐스탄 한국학진흥포럼

2019년 12월 7일 알마티 노보호텔에서는 알마티 총영사관 주최로 카자흐 국립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가 참가한 “제 1 회 카자흐스탄 한국학진흥포럼”이 열렸다.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카자흐 국립대에서는 자리파, 이병조 교수 등이 발표를 하였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한국학 발전을 위한 정기 포럼 개최와 함께 유관기관과 한국학 연구자들의 상호교류와 협력의 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학주간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와 전통으로 자리잡은 “한국학주간”은 2020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 주 동안 카자흐 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부에서 학생과 교직원 150여명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연례행사로 “한국의 문화역사 퀴즈대회”, “한국어 경시대회”, “한국음식문화체험의 날”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마지막날에는 “대사와의 만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알마티 한국총영사와의 만남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한 주일 동안의 한국학주간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한국학주간”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한국의 정부기관, 기업체 구성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류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